

지역 소식통

김제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는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김제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가정의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해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액은 연령별 부모보육료의 50%로 14만원에서 최대 28만 3,500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금산고 씨름부
전국장사씨름대회 동메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동국대 사범대학부속 금산고 씨름부가 최근 삼척시에서 개최된 제1회 삼척시 이사부장군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고등부 용사급(-90kg)에서 3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의 유망 주들이 대거 출전해 매경기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었다. 동메달을 획득한 1학년 박주환 선수는 저학년임에도 뛰어난 기술과 투지로 연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주환 학생은 “힘든 훈련이었지만 가족같은 씨름부원들과 감독님, 부모님의 한결같은 응원으로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며 “변함없는 노력으로 다음 대회에는 금메달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병주 금산고 씨름부 감독은 “이번 입상을 통해 선수들의 노력이 성과를 나타난 만큼, 씨름부의 자신감도 한껏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씨름부가 한단계 한단계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새마을회, 폐농약병
농약봉지 2차 수거 전개

김제시새마을회(회장 백창민)는 지난 25일 김제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지역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지구 흙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폐농약병 및 농약봉지 2차 수거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지도자김제시협의회(회장 서재선), 김제시새마을부녀회(회장 송연순), 새마을문고 김제시지부(회장 손정권) 등 19개 읍·면·동 새마을회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수거 활동에 나섰다.

수거된 농약병과 봉지는 계량과 집하 과정을 거쳐 한국환경공단 전주수거사업소로 배출되며, 이를 통해 발생한 보전금은 19개 읍·면·동에 배분돼 △고추장 담기 △저소득가정 도배·장판 교체 △청소년 장학사업 △연말 어려운 이웃 생필품 지원 △마음화관 식재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전액 활용될 예정이다.

김제시새마을회는 지난 14년 동안 매년 2차례 수거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연간 40여 톤 이상의 실적을 기록해왔다. 이 같은 실천은 김제시를 대표하는 환경보호 활동이자 전국적으로 확산될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물고기 잡고... 로컬밥상 즐기고...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성료... 수많은 방문객 몰려 전북 대표축제 위상 재입증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펼쳐진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며, 완주를 넘어 전북 대표축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맨손 물고기잡기, 메뚜기 잡기와 같은 체험과 13개 읍면 마을 셰프들이 준비한 로컬밥상 및 다양한 먹거리 부스,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대형 가래떡 뽑기까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방문객들은 맨손으로 잡은 물고기와 고산 한우를 화덕에 구워 먹고, 직접 쇠를 다듬어 대장간 체험을 하는 등, 와일드&로컬푸드축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또한 어린이 사생대회, 신바람 제조대회, 농특산물 깜짝 경매, 완주 9품 달인을 찾아라 등 연계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으며, 축제 마스코트 ‘펄떡이’를 활용한 굿즈스토어까지



지난 26일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동물 조형물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운영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여기에 김희재, 배아현, 하하썬스컬, 황민우&황민호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까지 더해져 전 세대가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 와일드&로컬푸

드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지역 먹거리가 어우러진 축제로, 매년 축제를 거듭할수록 완주의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축제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자’ | 김제시,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김제시(시장 정성주) 치매안심센터가 주관한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이 지난 26일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치매여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치매환자와 가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치매관리 극복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그 공로를 인정해 정성주 김제시장이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한 동행 영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후견인 활동,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소



수여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직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따뜻한 동행 영상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공후견인 활동, 치매환자와 함께하는 소

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따뜻한 동행이 모여 치매 친화적인 김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되새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극복 수기 발표와 치매안심센터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 작품 전시회도 함께 진행돼 뜻깊은 시간을 더했다. 한편 시는 유튜브 온라인 댓글 이벤트,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스쿨튜브’ 개국... AI 미래교육 새 지평

유희태 완주군수-학부모 패널-AI 패널, 주요 정책 분석... 새로운 정책토론 모델 선보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성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AI 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완주군 스쿨튜브’를 공식 개국하며, 지역 교육과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지난 25일 열린 개국 방송은 ‘지역인재육성에서, 지역정주까지, 완주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학부모 패널, 그리고 AI 패널이 함께 참여해 인간과 AI가 협업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토론 모델을 선보였다. AI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완주군의 10만 완주시에 개막,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유치,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피지컬 AI 선도도시 육성 등 주요 정책을 분석하며 토론의 깊이를 더했다.

“완주군 스쿨튜브”는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참여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부터 완성까지 경험하며 실질적인 ‘콘텐츠 라이프라인(Content Pipeline)’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교육에서 학부모들은 방송 설계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법을 학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 AI 실무자 양성과정 교육생들과 함께 지난 25일 ‘완주군 스쿨튜브’를 공식 개국하며, 지역 교육과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습하고, 이를 통해 타이틀·로고·영상 인서트 등 멀티모달(Multi-modal) 디지털 에셋을 AI로 직접 제작했다.

특히 이번 과정은 학부모 크리에이터들이 기술적 장벽을 넘어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미디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AI와의 토론을 통해 얻은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인사이트는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며 “이번 시도는 AI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AI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자리였고, 앞으로도 주민 참여와 AI 협업을 통해 완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건설로봇 산업 클러스터화
김제, 건설산업 혁신 거점화

시, 고소작업 건설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본격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건설로봇 산업 클러스터화를 본격 추진하며 대한민국 건설산업 혁신 거점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번 클러스터화는 연구개발(R&D), 실증, 기업지원, 인력양성, 산업 확산까지 연결되는 종합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전개된다.

건설산업은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심화, 안전사고 증가, 생산성 저하 등 공모한 ‘고소작업 건설로봇 플랫폼 및 XR 기반 인간·로봇 협업 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비·지방비·민자 등 총 475.9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확장현실(XR) 기반 인간-로봇 원격 협업 작업이 가능한 고소작업 3종 로봇시스템(용접·도장·내화벽칠)을 개발하고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에 실제 건설 현장 적용을 위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의 고소작업 건설로

봇 실증 인프라(연구동, 실증센터)를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시는 이미 특장차 제1·2산업단지와 지평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목적기계 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대규모 산업·기술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지역 내 특수목적기계·부품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로봇·XR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실증 병행을 통해 기업의 신기술 검증·인증·상용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특히 시는 필드로봇 중심 피지컬 AI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이번 건설로봇 클러스터는 해당 전략과 맞물려 신산업 융합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는 건설로봇 산업의 출발점이자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역과 국가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승부를 넘어 화합으로, 만남을 이어 동행으로’

김제시, 4년 연속 자매도시 축구교류행사 진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 생활인구 유입 방어의 일환으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4곳의 자매(우호)도시와 함께 축구교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2년 개최 이후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남 완도군, 서울 관악구, 경기 안산시, 충북 음성군이 참여했으며, 김제시 포함 총 150여 명의 인원이 화합과 우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행사에 참가한 자매(우호)도시 선수들은 “타지역 직원들과 함께 스포츠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즐거웠다.”라며, “김제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김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4년 연속 축구교류행사를 김제시에서 개최하다 보니 김제시가 만남과 친목의 장이 된 것 같다.”라며 “이 만남이 조금 더 나아가 지속적인 인적 교류로 발전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와 각 자매(우호)도시는 교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하며 동행을 이어 나가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봉동읍 낙평리 ‘물난리’... 김재천 부의장 현장 점검

반다비체육관 준공 이후 상습 침수... “근본 대책 시급”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봉동읍 낙평리 반다비체육관 인근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부의장은 우산도 없이 장화 차림으로 논둑을 따라 걸으며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물길과 배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부의장은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반복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해당 지역은 약 6만3,000㎡(약 2만 평)에 달하는 광범위한 면적으로, 반

다비체육관 준공 이후 자연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

김재천 부의장은 “군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체육관이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단기적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반다비체육관 건립 당시 사전 배수 설계와 사후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문기관 진단, 우수처리 체계 재정비, 지속적인 모니터링 구축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대표음식점 간담회 개최

시민 신뢰 · 관광객 만족도 높이는 음식문화 조성 박차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5일 보건소 중회의실에서 지역 대표음식점 영업주 및 외식업중앙회 김제시지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음식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표음식점 지정 운영 현황, △위생등급제 전환 추진 계획, △친절·서비스 교육 방안, △메뉴 개선 및 지역 특색 반영,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수렴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최근 시민과 관광객들이 외식업소를 선택할 때 위생과 안전, 친절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대표음식점이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 개발과 음식점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행정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